



3,4월의 해충 (X II)

밤나무 깍지벌레 (밤나무 등근깍지벌레)

변 병 호 / 임업연구원 산림곤충과장

이 해충은 1956년 서일본 밤나무 재배지에서 발생된 새로운 해충으로, 우리나라에는 1988년 여주지방에 발생된 기록이 있으며 1992년에 경남 진양군 미천면과 하동군 양보면의 밤나무 집단 조림지 22ha에 피해가

발생되어 대부분의 밤나무를 고사시킨 새로운 밤나무 해충이다.

◎ 분포 : 한국, 일본

◎ 가해수종 : 밤나무, 계수나무, 서나무, 자작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굴나무, 배나

무, 포도나무, 매실나무, 일본목련등.

◎ 가해상태 : 줄기 및 가지의 수피에 기생하여 수액을 흡즙하므로 수세가 약화되어 조기 낙엽이 되고 수피가 균열되어 가지의 일부가 말라죽으며 피해가

밤나무깍지벌레 피해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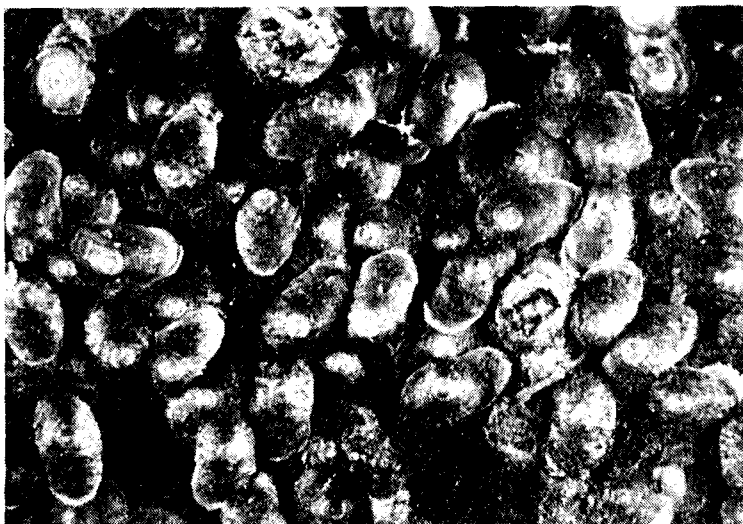
심할때는 나무전체가 고사된다.

◎ 형태 : 암컷 성충의 개각(介殼)은 대부분 원형이며 직경은 2mm정도이고 각점(殼点)은 거의 중앙에 있다. 중심부가 두텁고 외연부(外緣部)로 갈수록



각지벌레가 붙어있는 가지

수피에 붙어있는 성충



얇어지며 불선명한 암회갈색 또는 회흑갈색의 둥근 무늬가 있다. 총체의 길이는 1.3mm정도이고 체색은 담황~황색이다. 수컷의 체장은 0.5~1.0mm, 날개를 편길이는 1.0mm이며 반투명하다. 체색은 등황색이며 흉부와 촉각은 약간의 암색을 띄고있다. 부화약충은 체장이 0.28mm이며 체색은 황등색이고 번데기는 체장이 0.8~0.9mm이다.

◎ 생태 : 일본에서는 1년에 약충이 2회 발생하며 1회는 6월 초순부터 7월초순이며 2회는 9월초순부터 10월초순이다. 수컷은 완전변태를하여 번데기가 되었다가 날개가 있는 성충이 되며 암컷은 불완전변태를 하여 종령약충이 번데기 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날개가 없는 성충

으로 된다.

◎ 방제법 : 이 해충은 기주범위가 넓고 총체가 작으며 특히 밤나무의 수피색과 총체를 덮고 있는 각지의 색이 비슷하여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무가 고사한후에 발견되는 때가 많으므로 항상 주의해서 관찰하지 않으면 방제시기를 놓치기 쉽다.

■ 월동기 방제

밤나무는 수고가 높고 경사지에 많이 식재되어 있어 잎이 있을때는 약제를 살포하기 어려우므로 낙엽기인 초겨울에 기계유제를 20배로 희석하여 살포하면 높은 살충효과가 있다.

그러나 약제살포 3일내에 30mm정도의 강우가 있으면 살충율이 반감되므로 일기에 주의하여 살포해야 한다.

■ 부화약충기 방제

각지벌레는 부화하여 정착하기 전에는 총체에 각지가 덮혀 있지 않으므로 약제를 살포하면 바로 총체에 접촉되어 살충효과가 높으므로 이 때에 약제를 살포하는것이 좋다. 약충 1화기는 7월, 2화기는 10월에 메치온유제 1,000배액을 살포하거나 파프 2%분제를 ha당 90kg씩 부화후 10일이내에 살포한다.